

### 해의통신

#### 캠, 평화 행진단 피습 크메르 게릴라 공격 스님등 3명 살상

지난 4월 30일 캄보디아 북서부 지역에서 크메르 루지 게릴라들이 작년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마하 고사나다 스님이 이끄는 평화행진단을 공격하여 비구 1명, 비구니 2명, 일반인 1명을 살상하고 다른 스님 및 분에게는 부상을 입힌 사건이 뚜렷해 알려졌다.



고사나다 스님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불교 잡지인 TRICYCLE 1994년 가을호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잡지에 따르면 게릴라들은 행진 참가자들이 북서부 바탐방의 바텔 지역을 정부군의 총위를 받으며 지나자 자동 소총과 수류탄을 발사했다는 것. 또한 스님과 함께 행진하던 10여명의 외국인들은 게릴라들에게 잡혀 억류되었다 풀려나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간디라는 별칭을 얻은 마하 고사나다 스님은 캄보디아의 평화를 바라는 열원에서 750명 이상의 비구, 비구니, 일반인들을 조직하여 4월 24일 바탐방에서 250마일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 행진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세번째 실시되었는데 행진에는 크메르 루지군의 근거지인 팔린, 북서부 캄보디아 지역을 거쳐 앙코르 와트 사원에서 끝나게 되어 있었다.

(박익명 기자)

#### 불자의원 간담회 설립 전일본 불교협회

전 일본불교협회는 지난달 6일 동경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교국회의원간담회를(가칭) 설립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각 종파는 그동안 각각 소속 국회의원 간담회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전일본 규모의 간담회 결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전국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약 2백여명의 불교신자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동협회의 주최로 변호사인 아사카 씨를 초빙, 「종교와 정치의 현실적 과제」란 제목의 세미나도 개최했다.

## 불교TV, 불자주식 80억모금

### 국내외 참여도 높아·개국준비 순풍

불교텔레비전(이사장·태웅)은 불자주식 공모에 총 79억 8천 7백 98만원이 납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불교TV는 지난 10일 한국의 환은행 마포지점을 통해 이같은 주주공모 실적을 발표했다.

전국불자의 적극적인 참여, 1인당 최소 10주 최대 2만주까지 청약 가능했던 주식을 1백 59만 8천여 주식이 매각돼 집계된 것이다. 불교텔레비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주공모에 불자들이 성심성의껏 동참해 주

어서 감사하다"고 칭하고, 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불교TV는 영상매체를 통해 불법을 홍보하고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일대 거부의 시작만을 남겨놓고 있다.

## 신행 현장 생방송으로 배달

### btn 「자비의…」 등 3개 프로 방영계획

불교텔레비전이 다이나믹하고 현장감 넘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녹화방송이 주류를 이루는 케이블TV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불교TV는 「bn 소식 일기 예보」, 「bn 기획 자비의 천수 천안」, 「TV신행상당」을 생방송으로 제작, 불자의 가정에 생중방 넘치는 불법의 인연을 배달할 계획이다.

생방송 프로그램 중 매일 15분간 방송되는 「bn소식 일기 예보」는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각종행사 및 일기예보를 1일 2회 10시부터 생방송으로 꾸미진다. 또,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할 「bn 기획 자비의 천수천안」은 불교TV를 통해 자비보시행 실천의 장을

마련한다. 교구, 본말사, 지역 사암연합회, 각 지방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은 불우장애인이거나 질병가족,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와 현장을 중계차로 연결,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생생히 전하고 불자들의 근근한 정과 따뜻한 자비심으로 인연을 맺어준다.

「TV신행상당」은 불자들이 사회와 인생전반에서 겪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방청객의 활발한 동참을 유도, 불교적·사회적관점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면서 생중방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리포터의 등장과 전화, 팩스, 하이

텔·천리안과 같은 PC통신을 이용한 진행으로 생방송으로서의 신선감을 더 할 예정이다. 이런 불교TV 생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불자들은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불교TV는 녹화방송에 비해 방송사고의 위험이 큰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사전에 제작진과 업무부담 책임을 잘 조정하여 세심한 사전기획의 배려를 하고 있다. 또, 불교TV는 전문방송으로서 고유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방송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에 전념하는 등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안방에 전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필선 기자)

## 문화재 관리국 내년 예산 5백91억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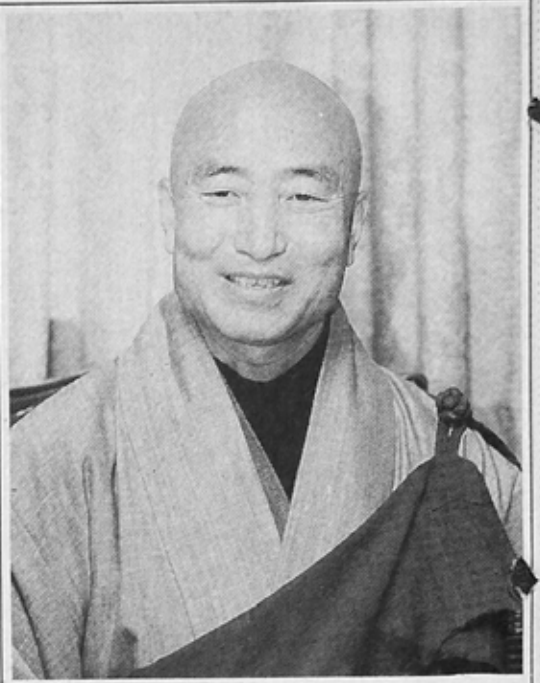
### 금년보다 20% 증가...국회 심의 남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문화재관리국의 95년도 총예산(공무원 임금 제외)은 501억 4천6백만원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 492억6천만원에 비해 20.07%가 상승한 것이다. 이는 문화재관리국의 평년 예산상승률 15% 보다 5%이상 상승한 것으로, 문화재보존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화재관리국 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탐골공원에 인각사지식탑과 인각사 사적비의 훼손 보도로 인한 문화재보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확대돼, 문화재보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일종교인 회의 일본 연력사서 제6차 한일종교인회의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도 히에쓰에서 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과 일본, 북한측 종교인 30여명이 참가, 사할도로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불이상 후보모집 연구 실천 연합분야 불이회는 제10회 '불이상' 후보를 모집하고 있다. 수상 분야는 연구분야, 실천 분야, 출가면학분야이다. 연구 분야에는 석사과정 수료 이상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며 불교학 관계 연구에 큰 성과를 올린 사람이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불교학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 또 실천 분야는 불교에 입문 5년이상 활동을 한 40세 이하의 불자로 포교와 신령이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 출가면학 분야는 수행 경력 5년이상 7년이하의 스님이면 추천할 수 있다. (문의:575-6167)



조계종 제11대 총회회장 설정스님

## “존경·신뢰받는 총회 이끌겠다”

제11대 조계종 중앙총회회장으로 선출된 설정(雪亭)스님(50)은 "기대를 안겼는데 의장으로 선출해 주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설정스님과 1분1답. -의장 출마 동기는 "절반 먹은지 40년이 넘어 종단을 위해 회향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게 됐다. 개회불사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어떻게 총회를 꾸려갈 것인가 "이번 총회야말로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총회다. 구 총회가 갖고 있는 비리·부조리의 이미지를 척결하고 종단과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개혁총회를 이루는데 앞장설 것이다."

-개혁회의에서 법적 위헌장을 받았는데 개혁회의의 평가를 한다 "기간이 짧고 합입은 많고 해서 애로점이 많았다. 특히 경험 부족에서 오는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개혁 완수를 위해 총회가 적극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총회 운영의 기본 구상은 "첫째 분종·계파를 초월 대화 문화를 창출하겠다. 둘째 과거 총회가 집행부의 시나 또는 틀러리었다는 부끄러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셋째 반대를 위한 반대, 견제를 위한 견제를 지양하겠다. 넷째, 총무원과 함께 입법과 행정의 두 축으로서 종단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

-총무원장 후보인 월탄스님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월탄스님은 모두 훌륭한 분입니다. 월탄스님과 저는 여의(80년대 교구본사주지 친목단체)의 같은 회원이다. 그러나 문종이나 계파를 극복하고 공평무사하게 공동화합에 주력할 것이다."

80%가 초선인 이번 총회에 능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 층이 대거 출현, 종단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설정스님은 지난 1955년 수덕사에서 월탄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덕사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 대전 실공사 주지로 있다. (이경숙 기자)

개혁회의가 노심초사해 온 환한수(진경)의 33명(나중에 17명으로 줄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각하 판결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이 때 있었다. 사법당국도 타 종교는 일체 간섭 안하는 경우와 달리 불교 내부의 일에 관여 하려 하는 것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처럼

호사 수입료까지 생각하면 개혁회의의 7개월간 개혁회의를 대상으로 한 30여건의 재판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산출된다. 소중한 삼보정체가 유실될 것이다.

선고공판의 취지는 종단 내부의 일은 종단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본안 심사도 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즉 개혁회의가 종단내의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를 제거하며 종헌준법의 정비를 통해 종단의 민주적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구 새대의 폐풍을 쇄신, 수행과 교화

종도를 진작한다는 명목하에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기에 자주적으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종교단체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본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내부 분쟁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로 인해 특 하면 사회법에 제소하는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건의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준비만 해도 몇 백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변

내부 분열이 있 으면 그것은 사회 혼란과 연결 되기 때문에 사회법의 간섭을 자초하게 된다. 불교가 단합이 잘 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자율에 맡기게 한다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사자는 의무의 적에 의해 죽는것이 아니라 자기몸속의 조그만 벌레때문에 죽는다는 사자신중승(獅子身中蟲)의 비유가 다시금 생각난다.

사자 몸 속의 벌레

이 경 속 (취재1부 차장)

목탁 소리

진리의 전 화

#### 신축법당 이전 대법회 30일 대구 공덕원

대구 수성구 공덕원(회주 석용산)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공덕원에서 신축법당 이전 개원 대법회를 갖는다. 공덕원은 20여년동안 전세법당을 이용하다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완공했다.

#### 아시아 10개국의 오늘

KBS와 NHK가 공동제작한 「아시아 하이웨이」가 총 10부작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KBS 1TV에서 방송되고 있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현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갈등을 추적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불교적 전통의 총망심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진각종 총무원 교육 내달 1~2일 통리원서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자광)은 오는 12월 1·2일 양일간 통리원에서 각 지역 처우회의를 갖는다. 통리원 정무원들과 각 지역의 예비 교육자들이 모여 총무원 지침사항 및 정진교육, 총무원정 설립회, 회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될 이번 처우회의의 참가 예상자는 40명이다.

#### 창종 6주년 기념법회 30일 법륜중

한국불교 법륜종(총무원장 일화)은 오는 30일 수요일 정

#### 부처님 올인생 상담전화

부처님 올인생 상담전화 (02)759-3033~6

##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살아있는 명품-팔상록, 금강경

- 작품애실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金盞로 전면에 조성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金盞로 사경하여 원력을 담았습니다.
- 전면: 팔상록 • 후면: 금강경

1. 도솔대의상-석존께서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림강생상-몸뚱이 꽃동산 탄생하시다.
3. 시문유관상-생노병사의 허무를 관찰하시다.
4. 유성출가상-한밤에 벽을 넘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시다.
5. 십신수도상-십신과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각을 이루시다.
6. 수허하심상-마왕과손의 도전을 받고 강복을 받으시다.
7. 녹인전법상-5비구의 귀회와 죽어한 설법하시다.
8. 쌍림일방상-일방에 드시다.

포교기념품증정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대중 포교를 피고자 본성품을 신장하는 분께 백자 반아달마다 도자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특별보급가격: W39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장기분할가격 W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8회

자거불자 성도 거사님이 직접 그린 금회입니다. • 폭자규격: 1520×520(%) • 포교가격: W198,000원

한국불교전통문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문의처: (02)439-6128~9 (글로벌서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벌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